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 토양입니다

(사도행전 12:12, 디모데후서 4:11)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성장을 돕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모든 진액을 쏟아 붓고 죽을 힘을 다해야 하는 고귀하고도 숭고한 희생의 과정입니다. 가난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가정을 지켜온 모든 부모님의 헌신은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영적 지표가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모의 역할이 단순히 물질적인 공급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인생이 뿌리 내릴 비옥한 '영적 토양'이 되어야 함을 여러 인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훌륭한 어머니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영적 토양의 색깔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의 어머니'였으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매년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정성껏 지은 겹옷을 입히며 기도를 심었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또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아들에게 말씀과 거짓 없는 믿음의 성품을 전수한 '말씀의 어머니'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겪는 참혹한 고통을 지켜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애도함을 깨닫고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들의 영적 역할 또한 자녀의 영혼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였고,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자녀들을 세밀하게 축복하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세상적 성공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영적 파수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집안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당당히 선포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화려한 말보다 정직한 책임감과 묵묵한 보호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결국 성경이 제시하는 최고의 부모란 자녀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요 인물인 마가(요한)는 이러한 훌륭한 영적 토양에서 자라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이 마가를 소개할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집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은 그가 어떤 영적 환경과 정서 속에서 성장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가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하인을 거느릴 만큼 부유했으나, 그 풍요가 결코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대저택을 사적 공간이 아닌 예수님과 성도들을 위한 거룩한 공간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처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하신 역사적 장소였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승천 후 120명의 성도가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기독교 역사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까지 옥에 가두며 교회를 박멸하려던 공포의 시기에,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기도의 처소로 개방했습니다. 이는 재산 몰수나 목숨의 위협을 무릅쓴 결단으로, 마가는 자신의 집이 핍박받는 성도들의 도피성이자 지친 이들의 위로처가 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마가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나, 성경의 여러 기록을 유추해볼 때 그 역시 주님과 깊은 친분이 있거나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물동이를 메고 길을 예비했던 헌신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옥한 영적 토양에서 자랐다고 해서 마가의 인생에 실패나 좌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가는 초기 전도 사역에서 매우 미숙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홀이불을 두르고 구경하다가 잠히자 알몸으로 도망칠 만큼 비겁했으며, 1차 전도 여행 당시에는 험난한 지형과 풍토병,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의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사명을 포기한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은 훗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마가는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한 '트리블 메이커'라는 지탄과 수치심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도 때로는 흔들

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바로 그의 가정이라는 영적 토양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마가를 무책임한 낙오자라 비난했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을 정죄하기보다 그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기도로 인내하며 품어 주었습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마가에게 가장 안전한 영적 도피성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가는 연단의 시간을 지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바울은 생애 말년에 그를 자신의 소중한 '동역자'라고 불렀고, 베드로는 그를 '내 아들'이라 칭하며 복음 사역의 핵심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특별한 사도도 아니었고 의사 누가처럼 특별한 전문직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 '예배와 기도의 현장'이라는 유산을 통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나 상처 없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집은 원망과 외로움이 가득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그 어떤 척박한 가정의 환경도 생명력 넘치는 토양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입술을 통한 가르침보다 부모의 일상에 배어 있는 거룩한 습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뒷모습을 보며 자라납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내를 아끼고,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남편을 존중하는 그 사랑의 정서가 곧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갈 영적 토양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영원한 재산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마가의 가정처럼 고난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삶을 복음의 도구로 기꺼이 내어주는 십자가의 신앙을 실천할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 회복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의 영적 토양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수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